

국내경기는 2개월 만에 악화

~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충분한 가격전가가 하락세 요인으로 ~

(조사대상 2만 7,052사, 유효회답 1만 1,222사, 회답율 41.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1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급속한 엔저(円低) 진행 및 코스트 부담의 고조가 수익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있어 2개월 만에 후퇴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외국환율에 불확실성이 있으나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를 중심으로 10개 업계 중 6개 업계가 악화,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등이 폭넓은 업종업계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악화, 4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각지의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수요가 대체로 견조하였으나 원재료 가격 급등 및 지역 내 격차 확산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2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 외국환율은 2021년 이후 엔저(円低)경향으로 추이하여 2024년 4월의 월중평균은 1달러=153.7엔이 되었다. 기업으로부터도 엔저로 인한 원재료가격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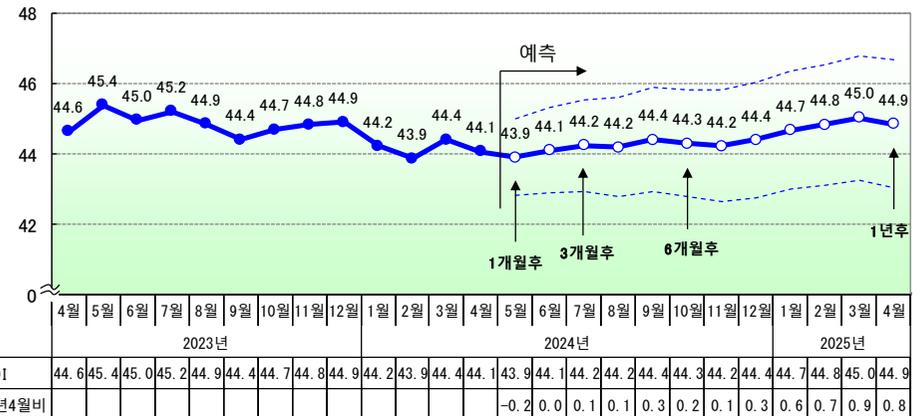
< 2024년 4월의 동향 : 일시후퇴 >

2024년 4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1로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급속한 엔저(円低) 진행 및 코스트 부담의 고조가 수익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있어 2개월 만에 후퇴하였다.

4월의 국내경기는 외국환율이 한동안 1달러=160엔대를 찍는 등 34년 만에 엔저수준으로 추이하는 가운데, 원재료가격의 고공행진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과 같은 코스트 부담의 증가,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이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또한 동일지역 내에 있어서도 체감경기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도 보였다. 한편 엔저로 인하여 활발한 인바운드 소비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견조하였던 한편 상업시설 및 소형 점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사관련, 인력부족에 대응하는 각종 서비스 및 성인화(省人化)투자 등은 플러스 요인이었다.

< 향후의 전망 : 완만한 회복 >

향후는 환율의 급속한 변동에 따른 물가로의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정책금리인상의 타이밍이나 미일(美日) 금리차이, 해외 정치·경제 정세 등에도 좌우된다. 또한 인력부족 및 2024년 문제로의 대응도 리스크 요인으로서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임금인상 등으로 인하여 개인소비의 행방이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실질금리 상승 및 인바운드 수요 확대, 적극적인 설비투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의 경기는 외국환율에 불확실성이 따르나 완만한 회복경향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